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 2척 수주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13,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규모는 2,321억원이며 해당선 박은 2023년 1분기 내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2021년 현재 LNG선 1척, 컨테이너선 4척 등 총 6억달러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삼성중공업, VLCC 4척 LOI

삼성중공업이 그리스 Maran Tankers와 LNG-fuelled VLCC 2+2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현재 Maran은 익명의 용선주와 이들 선박에 대한 용선 계약 체결 문제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장금상선-삼성중공업 LNG선에 이상 기류

장금상선이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LNG선 3척에 대해 건조 작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됨. 장금상선은 2019년 2월 총 4척의 LNG선을 발주했고, 1척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지불했으나 나머지 3척에 대해서는 건조작업을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확한 기일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됨. 당초 1,2차선의 납기는 2021년 하반기, 나머지 2척의 납기는 2022년까지로 알려짐. (선박뉴스)

2021년 수주금액 225억달러 예상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신조선 수주금액은 225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2020년 수주실적 대비 +23.1% 증가한 금액이며 EU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의무화 등이 노후선 교체에 대한 실질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발주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지주, 액면분할 중간배당

현대중공업지주가 주식을 액면분할하고,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지주는 액면가 5,000원을 1,000원(5대1)으로 액면 분할해서, 주주총회를 거쳐 4월12일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시함. 또한 결산 전에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는 '중간 배당'도 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조선일보)

Yangzijiang, 대규모 수주

중국의 Yangzijiang Shipbuilding이 Zhonggu Logistics로부터 파나막스 컨테이너선 10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3.5억달러 수준이며 해당 선박은 2022년 하반기~2023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이외에도 4,6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한 건조계약이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